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윤2월 22일)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안개가 휘도는 산'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매년 홍매화 축제를 열고 사진 콘테스트와 청소년 백일장을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홍매화 축제의 사진 콘테스트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 사진작품 부문에는 김진관 씨의 '안개가 휘도는 산'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진관 씨는 "봄비에 젖은 홍매화가 어쩌면 햇빛 아래보다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겹겹이 기와 사이로 몇 백 년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던 홍매화, 그 검은 기와 빛을 닮아 검붉게 빛이 났다. 봄볕에 데워진 지리산은 비를 맞아 안개를 내뿜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글=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진제공=화엄사

조계종 원로의장에 자광 대종사 선출

원로회의, 4월 6일 제 72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수석부의장 보선 · 차석부의장 도후 대종사 선출
직지사 법등 · 선운사 동명 스님은 새 원로의원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 새 의장에 자광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4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2차 원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자광 대종사를 원로의장으로 선출했다. 원로의장은 종헌 제27조 및 원로회의법 제4조에 따라 원로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5년이다.

새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7년 조계사에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8년 동국대 인도철학과 종비생 1기로 졸업했으며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현재 동국대불교학술원장, 반야선원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새 의장단으로는 수석부의장에 보선 대종사가, 차석부의장에 도후 대종사가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으로 선출된 보선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6년 용암사에서 수계했다. 14~15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용암사, 향림사, 청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흥사 회주다.

차석부의장 도후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신흥사에서 사미계를, 1974년 법주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인제 백담사, 고성 건봉사, 철원 심원사, 양양 낙산사 주지 등을 지냈다. 제12~13대 종앙종회의원, 불교방송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대종사 혜자(직할교구), 진허(마곡사), 장윤(동화사), 정인(해인사), 영환 · 지정(이상 범어사), 영배(통도사) 스님 등 7명, 명사 정륜(동화사), 혜안 · 진광 · 용운 · 성월 · 보선(이상 해인사) 스님 등 6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원로회의는 또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직지사 법등 스님과 선운사 동명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법등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제12 · 13대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 · 조계사 주지, 조계종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더프라미스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금오종합사회복지관장, 직지사 승려복지회장을 맡고 있다.

동명 스님은 봉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1973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 개운사 · 전등사 주지,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등사 회주와 전등선림 선원장, 행원문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대원 대종사는 임기 만료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원로 대종사들의 덕화로 종단의 중책을 맡아 무사히 마치게 됐다"면서 "원로 대종사님들의 깊은 애종심과 헌신으로 우리 종단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 5월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 등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주요 종책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진우 스님은 "집행부가 준비하는 주요 종책 과제들이 원로의원 대종사님들의 지혜와 덕화에 힘입어 원만히 진행되고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법원 무효 판결 後 특별재심 청구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 제227회 임시회서 가결

호법부장 30일 내 청구 명문화
"종단의 자주적 운영 침해 방지"
종무원법 등 종법 개정 통해서
벌금 미납시 교역직 임용 못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호계원 심판을 통해 이뤄진 징계가 국가 사법기관을 통해 무효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다시 종단에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벌금 징계자가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4월 3일 속개한 제227회 임시회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종헌종법특위)가 제안한 '총무원법 개정안'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법부장이 30일 내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법 개정에 대해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만당 스님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국가 기관에 의해 종단 자주성이 침해되고, 종단 종헌 · 종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 경우 호법부가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어 특별재심 청구를 종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무원법 개정에 대해 중앙종회의원들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과 '종단 호법부 조사의 신빙성 문제' 등 우려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만당 스님은 "대법원 등의 판결로 인해 종단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애초 특별재심 청구는 호법부 업무에 포함돼 있다. 특별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살펴보면 전부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가지 조항이 있다면 그 중 3~4가지가 과하다는 것이고 1~2건은 잘못이라고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종단에서 징계해야 할 부분은 징계하자는 것이 근본적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종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승려법, 사찰부동산관리법, 사찰법 개정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범계행위를 해 벌금이나 변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완납해야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해 변상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말사 주지 등에 임용된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특위 위원장 만당 스님은 "현행 종단 선거법과 산중총회법에는 벌금 및 변상의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말사 주지 및 교역직 종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를 명시해 벌금 및 변상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분한심사 시 이뤄지는 승려의 사정에 대해 현재는 '승려분한신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법에도 명확한 규정을 둬 그간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직할교구 이외 사찰이 건물의 신축, 이전, 철거할 때는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사찰법 개정안은 개정된 사찰부동산관리법과 연동되는 개정법안으로 동일 내용의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중앙종회는 종무보고, 종책질의, 종단 주요 인사안,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 경정안 승인의 건, 불기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관련 기사 2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 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